

101살 치매 시할머니 지극 정성 수발하는 50대 손주며느리

각박한 세대 속 더욱 빛난 '효심'

본인은 식당일·노점상 '역척'

50대 손주 며느리가 100세가 넘는 시할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어 화제다. 최선옥(여·53)씨는 지난해 7월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시할머니(101)의 병간호를 맡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는다. 매일 출근하기 전 병원을 찾아 할머니 안부를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라 시작이다. 최씨는 빠듯한 형편에 대학생 딸과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인근 식당에 나가 일을 한다. 점심·저녁 시간과도 차도 몰아타는 손님들을 상대한 뒤 녹초가 된 몸에도 시할머니 병원을 찾아

매 끼니 식사를 챙기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한참동안 이야기를 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최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난 1987년부터 광주에서 함께 시할머니와 살아왔다.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하는 자신을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시할머니의 사랑이 남달랐다는 게 최씨 설명이다. 생계를 위해 최씨 부부가 일터에 나갈 때면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준 시할머니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최씨는 함께 살던 시할머니가 며느리가 있는 장흥으로 내려간 뒤에 도 틈틈이 시할머니를 찾아가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최씨는 시할머니가 치매를 앓아 80대

며느리가 보살피기 쉽지 않아지자 선택 광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나섰다. 최씨는 어려운 살림에 노점상을 나서야 하는 형편을 고려해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집에서 5분 거리인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이 때부터 최씨는 매일 출·퇴근 때 시할머니를 찾아 손발을 닦아주고 끼니를 챙기는가 하면, 말벗을 해오고 있다. 최근 최씨는 당뇨병이 더 심해지면서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며 시할머니에 대한 병간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남편 류일천(56)씨는 "일을 나가면서도 매일 할머니 병원을 오가면서 간호하기 쉽지 않은데 힘들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남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했다. 다달이 들어가는 시할머니 병원비에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최씨는 "아이들이 주말에 병원을 갈 때면 서로 끌어안고 좋아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거나 내신 옆에서 돌봐준 시할머니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오히려 "여유롭지 못한 형편 탓에 모시면서도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한 것이 늘 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담양 관방천 '상춘인파' 광주의 한 낮 기온이 28.2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담양 관방천변에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산책하며 신록의 상쾌함을 느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30곳 "소방차 진입 불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전남 29곳, 광주 1개 학교 교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구조물로 진화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의 경우 진도 A분교를 비롯한 10개교가 정문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고 완도 B 중학교 등 5곳은 정문에 구조

물 등을 설치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C중학교와 영암 D고교 등 14개교는 건물에 있는 연결통로를 만들어 소방차가 드나들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1446곳 가운데 315곳(2.7%)이 소방차 진입이 힘든 것으로 이 의원은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관 시험도 '도핑테스트'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에 도핑테스트(약물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가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말

지러지는 제2차 순경 공개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순경 공개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받으려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경찰은 체력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조사하는 방식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해질 19:14, 달뜨기 13:05, 달지기 01:51

초여름 날씨 "선홍기 깨날까?"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Table with 4 columns: Region, Weather, Temperature, and another Temperature. Includes regions like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장성, 보성, 영광, 진도, 전주, 군산, 남원, 옥산도, 서울, 춘천, 강릉, 영동, 대구, 부산, 제주.

바다 날씨

Table with 4 columns: Direction, Wind, Wave Height, and another Wave Height. Includes directions like 서해, 남부, 남해, 서부, 남해, 서부.

생활지수

Table with 2 columns: Index Name and Value. Includes 수면 (30), 운동 (50), 빨래 (90).

주간 날씨

Table with 7 columns: Day (28th to 4th) and Weather/Temp. Includes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5·18기록관 내달 임시 개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내일 본회의 상정

운영 주체 논란을 빚어온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아카이브)이 다음달 임시 개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주경남)가 24일 5·18 기록관 설치 및 인력 운용 등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6일께 시행령을 공포하면 5·18 기록관은 같은달 임시개관 될 전망이다.

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 수정된 조례안에는 기록관장인 사업소장이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인권·평화 관련 연구와 교육 업무도 수행하도록 했다. 4급(서기관)인 관장은 애초 행정직 또는 학예연구관 중에 임용할 수 있었으나 자격을 연구관으로 제한했다. 5급(사무관) 2명 중 한 명은 행정직으로 채용하지만 애초 행정직 또는 연구관 중 채용 가능했던 나머지 한 자리(5·18 연구실장) 역시 학예연구관만 채용하도록 수정됐고, 6급 인력 역시 기록연구사만 채용하도록 했다. 총 인력은 11명 그 대로다. 5·18 기록관은 애초 지난해 5·18 기념식 한 달 전인 4월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시관 디자인 및 콘텐츠 미확정, 국비 일부 삭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로 연기됐다. 또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공공성'과 '전문적인 연구·보존의 중요성'을 이유로 각각 시 직영, 민간 전문 기관 운영을 주장하면서 개관 지연 사태가 더 이어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G에스골프' (SG ESGOLF) featuring a man in a suit, promotional text, and membership details. Includes text like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and membership tiers (S-싱글, S-트윈, S-VIP).